국힘 후보들 "이종섭 사퇴해야"

〈호주 대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도부 "조기 귀국으로 리스크 해소" 내부 평가 엇갈려

'수사 회피' 논란으로 총선을 앞둔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서둘러 귀국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 평가는 갈리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함으로써 일단 총선 전 '용산발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하며 한 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민심 수습과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별 후보들 사이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일부는 당 지도부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 대사의 대사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여전히 이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격전지 후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 중에서도 이 대사의 귀국이 민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한 이용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 "황상무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어느 정도 수습되고 위기감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욱(서울 서초을) 후보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 사태는 사실 돌발 악재"라며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사 귀국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일단 큰 고비는 넘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국정 쇄신의 모습을 우리가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그간 국민의힘에서 이탈해 여전히 출렁이고 있는 민심을 붙잡으려면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경남 양산을 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사가 사퇴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대사 귀국이 여론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공수처 수사를 받아서 그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그 이후에 (다시 호주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만약에 이 대사가 거취 문제로 고민한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자진 사퇴'를 해법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 뜻 좇으려 이종섭 귀국"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경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대사의 귀국에 대해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 대해 '공수처의 즉각 소환'과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했고,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는 외교 결례를 무릅 쓰고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며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질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민심에 민심 순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하는 정당이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4·10 총선 누가 뛰나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진=진보당, 무=무소속… 사진은 기호순)

민주당 조계원 후보 '원팀 조직' 구성 관건

여수을

21대, 민주당에 71.58% 몰표
조계원, 400일 간 출퇴근 인사
지역구 '관광 특수 소외' 과제

조계원(민)

김희택(국)

여찬(진)

권오봉(무)

여수을 선거구에는 민주당 후보로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 김희택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여찬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공동위원장, 무소속인 권오봉 전 여수시장 등이 표심을 얻겠다며 지역을 훑고 있다.

이 지역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70%이상 몰표를 준 전남지역 4개 선거구 중 한 곳이다. 여수을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 민주당 후보에 71.58%의 몰표를 줬다.

다만, 국내 대표 관광지로 우뚝섰지만 웅천 예술의 섬 등을 제외하면 여수 여행객들이 찾는 종포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여수박람회장 일대가 모두 여수갑 지역인 만큼 소라·화양면 일대, 쌍봉동 등 관광 특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여수을 주민들의 섭섭함과 관심사를 누가 더 챙기느냐를 놓고 지역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후보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친명' 후보라는 점, 400일 넘게 여수시민들의 출퇴근 이동로인 쌍봉사거리에서 피켓을 들며 얼굴을 알려온 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조 후보가 금배지의 꿈을 꾸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우선, 공천 과정에서 현역인 김회재 의원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생긴 조직 내 갈등, 상처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을 경우 본선 경쟁력을 높일 '원팀'의 조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역 정치권 반응이 많다.

조 후보가 21일 오후 김회재 의원을 지지하며 활동했던 시·도의원 등 민주당 조직원들과 만나 화합하기 위한 선대본부 구성을 논의하는 것도 이러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택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은 21일 선관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보성 출신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졸업한 그는 "한 때 33만 인구가 27만으로 줄었다"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여찬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젊은 층의 표심을 얼마나 흔들 지 관심사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여 위원장은 "선거 때만 청년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진정한 청년 대표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다.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면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권오봉 전 여수시장과 조계원 민주당 후보 간 대결 구도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 7회 지방선거 때 여수시장 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한 뒤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수시장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권 전 시장은 52.19%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권 전 시장은 이듬해 복당한 뒤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해 시장 선거에 나서지 못했다.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여수시장에 당선된 저력이 있는 만큼 경쟁력은 갖췄지만 현역 시장이면서도 재선에 실패한 점은 마이너스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힘 윤재옥 "다수당 원내대표 되는게 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22대 국회에서 선출될 후임 원내대표가 여당이 다수당인 원내대표를 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여당이 다수당일 때 원내대표를 해 보는 게 제 꿈이다. 협상 때마다 큰소리치고 협상 주도권을 쥐고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그 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다. 재의요구권, 소위 말하는 거부권을 제임기 중에 무려 9번 했다. 9번 거부권 행사한 법안을 8번이나 재표결했다"면서 "원내대표는 피 말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